

# 상실과 침묵의 윤리

202421409 국어국문학과 송창훈

## 목차

- I. 서론: 상실자의 만남 속 언어와 기록의 한계
- II. 논리의 실패와 몸의 구원
- III. 역설적 치유, 희랍어와 상실의 아레테(Arete)
- IV. 닿음의 윤리로 완성하는 침묵을 넘어선 소통
- V. 결론: 상실을 포용하는 몸의 윤리

## I. 서론: 상실자의 만남 속 언어와 기록의 한계

필자도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은 종종 이성적인 논리나 깔끔한 언어로 재단될 때마다 필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언어는 진실을 담기보다 나를 왜곡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손쉽게 판단당하는 도구처럼 느껴지곤 했다. 우리가 겪는 상실이나 불안은 어떤 명확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데 사회는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명쾌한 답을 요구한다.<sup>1</sup>

이러한 언어의 한계와 개인적 불안에 대한 필자의 경험적 문제의식은 한강의 『희랍어 시간』을 주목하게 된 주요 동력이다. 이 소설은 바로 이 언어의 한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언어의 폭력성에 갇힌 개인적 불안에 대한 문학적 대답을 던진다. 말을 잃은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두 주인공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감각과 소통 수단이 무너지는 전체적인 상실을 겪는다. 작가 한강은 이 소설이 "세계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직접 밝혔다.<sup>2</sup>

상실의 맥락 속에서 여자가 심리치료사의 논리적 진단을 거부하고 "핏자국이라도 새겨 뒀더라면" 하고 절규하는 지점은 언어가 진심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규격화하여 폭력적으로 만드는 현실을 고발하는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다.<sup>3</sup> 언어는 나를 세계와 연결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나를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모순되는 장치로 작동한다.

본 보고서는 언어의 왜곡성과 폭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소설이 제시하는 침묵 속의 진실, 즉 '몸의 언어'가 회복되는 과정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논리적 언어가 폭력이 될 때 주인공들이 소통 불가능성을 전제한 '죽은 언어'(희랍어)를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상실의 경험을 존재의 탁월함(아레테)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상실을 포용하고 몸으로 다시 쓰는 새로운 윤리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리의 실패는 '몸'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언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

<sup>1</sup> 김주환, 「미셸 푸코의 담론분석 방법론의 원리와 체계적 난점들」,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sup>2</sup> 한강, "우리는 모두 다 세계를 잃어가는 사람들", 《채널예스》, 2011년 7월 20일 접속 (접속일: 2025. 12. 13.). [원문 보기: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18881>]

<sup>3</sup>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20쪽.

## II. 논리의 실패와 몸의 구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성과 논리로 깔끔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은 현대 사회가 유지하는 가장 큰 폭력 중 하나이다. 『희랍어 시간』은 개인의 실존적 고통을 틀에 맞추려는 논리적 언어의 실패를 여주인공의 침묵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sup>4</sup>

주인공이 말을 잃은 후 찾은 심리치료사의 상담 장면은 이러한 논리적 언어의 폭력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치료사는 여자의 아픔을 '양육권 소송 패배'나 '육친의 죽음' 같은 '원인'들로 명료하게 분석하고 하나로 줄이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분석의 끝에 던지는 말은 "이해합니다"이다.<sup>5</sup> 여자는 그 "명석하고 아름다운 결론의 어딘가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말 역시 진실이 아님을 담담하게 깨닫는다. 이 '이해합니다'라는 말의 뜻은 언뜻 보면 공감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고통은 이제 내가 가진 논리적 틀 안에 완벽하게 포섭되었다'는 선언이며 주인공의 복잡하고 현재 진행형인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자대로 찍어내는 폭력'으로 작동한다. 필자의 시각에서 이 '이해합니다'는 고통을 공유하는 대신 규정하겠다는 오만함으로 인식했다. 심리적 규정은 타인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공감의 노력을 회피하고 고통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은밀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논리의 폭력성은 소설의 중심부인 희랍어 수업에서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 대학원생은 플라톤의 논증을 인용하며 이렇게 묻는다. "모든 사물은 그 자신을 해치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과 유비를 이루는 인간의 혼은 왜 그 어리석고 나쁜 속성들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은 논리적 인과율이 인간의 존재와 구원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고통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도 연결된다.<sup>6</sup> 논리적으로는 파괴되어야 할 혼이 비논리적인 차원에서 구원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질문은 모든 것이 효율과 성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현대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인간의 실존은 논리적 파괴를 초월하는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혼의 파괴에 대한 질문이 논리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후 남자 강사는 친구 '요아힘 그룬델'의 죽음을 접한다. 강사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비난이나 논증 대신 깊은 후회와 연민을 느끼고 요아힘을 안아주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그는 고백한다. "인간의 몸

---

<sup>4</sup>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sup>5</sup>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47쪽.

<sup>6</sup>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91쪽.

은 슬픈 것이라는 걸. 오목한 곳, 부드러운 곳, 상처 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은. 팔뚝은. 겨드랑이는. 가슴은. 살은. 누군가를 껴안도록, 껴안고 싶어지도록 태어난 그 몸은."<sup>7</sup>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앞서 논의된 '혼의 파괴 질문'에 대한 비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논리적으로는 파괴되어야 할 혼이 파괴되지 않는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촉각적 연민에서 비롯된다. 논리가 타인의 고통을 규정하고 고립시켰다면 몸의 취약성(약함)에 대한 연민이야말로 그 고립을 깨고 혼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윤리적 발견임을 역설한다. 타자의 고통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취약한 몸을 통해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통해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깨달음을 통해 기존에 타인에게 위로한답시고 던졌던 성급한 언어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진정한 위로는 해결책이나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그저 고통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촉각적 연대에서 시작됨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 III. 역설적 치유, 희랍어와 상실의 아레테 (Arete)

#### 1. '죽은 언어'의 역설적 선택과 중간태의 기능

논리의 실패와 언어의 폭력성이 주인공들을 고립시켰다면 필자는 이 고립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는 예상 밖의 치유 통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여주인공이 선택한 언어는 일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죽은 언어'인 고대 희랍어이다. 그녀에게 모국어는 목소리는 훨씬 넓게 퍼져 자신의 존재를 원치 않게 확장시키는 소란이었는데, 필자는 이 '모국어의 소란'을 현대 사회의 소통 강박과 온라인 피로도로 확장하여 해석했다.<sup>8</sup> 소통 불가능한 언어의 선택은 외부의 시선과 진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윤리적 단절인 것이다. 그녀는 소통 불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오직 내면의 회복에 집중하려는 자발적인 단절을 택하게 된다.

이 내적 치유의 가능성은 희랍어의 중간태(Middle Voice) 문법에서 구체화된다. 중간태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주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와 같은 스스로 채우는 의미를 내포한다. 필자는 중간태가 논리적 언어가 타인을 향해 '규정'되거나 '규정당하는' 폭력적 상황과 대비된다고 분석한다. 중간태 문법의 선택은 타인의 평가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

<sup>7</sup>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107쪽.

<sup>8</sup> 문길상. (1999, 2). 우리시대의 언어상황. 문예운동, 215-218.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자율적인 선언이다. 중간태는 그녀의 상실과 침묵이 오직 자신을 향한 내면 작업임을 문법적으로 선언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치유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 2. 상실의 철학적 가치로 아레테(Arete) 실현

남자 강사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가장 높은 덕(德)인 아레테(Arete)를 상실과 연결시킨다. 고대 희랍인들에게 덕이란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강사는 시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상황에 이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유에 관한 한 최상의 아레테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니?". 강사의 이 주장은 상실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스승임을 역설한다.<sup>9</sup>

시력이 멀어지는 경험은 안경 같은 덧없는 보조 수단을 제거하고 오직 근본적인 실존 감각을 깨닫게 한다. 상실의 고통이 없이는 존재의 탁월함, 즉 아레테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실의 역설적 가치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에 가장 분명하게 구현된다고 판단한다. 고흐의 삶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총체적인 상실의 연속 그 자체였다. 그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이나 『해바라기』의 강렬하고 격렬한 붓 터치는 논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열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고흐는 이처럼 정신적 상실의 극한에서 오히려 예술이라는 '몸의 언어'를 통해 존재의 가장 순수한 탁월함(Arete)에 도달했다. 그의 작품은 곧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상실 자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대를 초월하여 증명하는 몸의 기록인 것이다.<sup>10</sup>

필자는 상실이 정직한 스승이라는 개념이 현대인에게 주는 울림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스펙이나 물질적 소유, 또는 화려한 네트워크를 '덧없는 보조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집착할 때 상실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나의 실존'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직시하게 하는 강렬한 계기가 된다. 이처럼 상실의 과정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말이 아닌 몸의 기록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가치(이데아)를 발견하는 아레테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sup>11</sup>

---

<sup>9</sup>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98쪽.

<sup>10</sup> 오병욱, 전석원. (2006). 그림이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대한토목학회지, 54(8), 91-97.

<sup>11</sup> 한강, 앞의 인터뷰.

#### IV. 닿음의 윤리, 침묵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

##### 1. 감각 단절의 극한과 필담의 탄생

내적 치유의 과정을 겪고 두 주인공은 마침내 감각의 총체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길을 완성하는 순간을 탐구한다.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는 안경 파손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고 여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극한의 상황이 설정된다.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아 펼치고 떨리는 검지손가락 끝으로 그의 손바닥에 글씨를 쓴다. '손바닥 필담'은 바로 논리와 말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한 침묵하는 진심의 통로이다. 여자는 소리로 외치거나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가장 가깝고 진실한 '촉각'만을 사용해 타자의 고통에 응답한다. 촉각은 언어의 폭력을 우회하고 두 존재의 취약한 살갓(약한 피부)에 직접 진실을 새겨 넣음으로써 단절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방식은 한강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만져서 느끼는 세계 인식이 절망에 빠진 인물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이 필담의 탄생을 언어의 지배에서 벗어난 '몸의 선언'으로 진단한다. 이 극한의 단절 상황은 주인공들에게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직 '닿음'을 통해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방식만이 남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촉각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선부른 규정을 포기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손바닥 필담'은 언어 폭력에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규정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느껴지는 감각만이 파괴된 관계와 소통의 윤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 2. '껴안음'의 윤리: 촉각적 연대의 완성

'손바닥 필담'을 통해 응급 상황을 넘긴 두 주인공의 관계는 이튿날 아침 '껴안음'이라는 최후의 윤리적 행위로 완성된다. 남자는 어떤 설명이나 논리적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의 공기 속에 떠오른 그녀의 희끗한 얼굴을 향해 다가서서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는다. 남자는 이 닿음에서 "틀려서는 안 되는 무게"를 느낀다고 사유한다. 이 틀려서는 안 되는 무게는 이성이 측정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와 존재가 서로의 상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비논리적인 윤리의 척도이다. 두 주인공은 오직 몸의 연약한 닿음을 통해 타

---

<sup>12</sup> 한강, 앞의 책.

자를 가장 진실하게 포용하는 '닿음의 윤리'를 완성한다.<sup>13</sup>

이 포용이야말로 소설이 지향하는 '몸의 윤리'의 완결이라 생각이 든다.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연대가 아니라 앞서 지적한 논리적 언어의 실패와 개인의 내적 치유 과정을 타자와의 실제적인 연대로 확장하는 행위이다. 특히 '들려서는 안 되는 무게'에 대한 필자의 고찰이 깊다. 이 무게는 상대방의 고통과 존재 자체를 온전히 짊어지겠다는 윤리적 결단이며 논리로 덧씌워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생존을 건 진실한 인간성 회복의 무게를 상징한다고 진단할 수 있다. '무게'는 현대 사회의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이 무게야말로 진정한 인간적인 소통의 새로운 길이 제시되는 근원이자 결론이라고 해석된다. 마침내 이 포용은 감각의 단절을 넘어선 만져서 느끼는 연대의 서사이며 이로써 인간적인 소통의 새로운 길이 제시되는 것이다.<sup>14</sup>

## V. 결론: 상실을 포용하는 몸의 윤리

### 1. 논의의 종합 및 상실의 재해석

본 보고서는 한강의 『희랍어 시간』에 나타난 언어와 감각의 전체적인 상실의 과정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윤리를 발견하는 필수적인 여정이었음을 성찰적으로 탐구했다. 논리적 언어의 실패 이후 주인공들은 '죽은 언어'의 중간태를 통해 내적 치유를 시도했으며 상실의 경험을 아레테로 승화시켰다. 최종적으로 감각 단절의 극한에서 '닿음의 윤리'를 통해 "들려서는 안 되는 무게"라는 윤리적 책임을 발견하며 연대를 완성했다. 그렇게 상실은 주인공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덧없는 보조 수단들을 걷어내고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토대를 발견하게 한 예상 밖의 은총이었던 것이다.<sup>15</sup> 상실을 은총으로 재해석하는 이 시각은 고통을 회피 대상이 아닌 '존재를 선명하게 만드는 도구'로 인정하려는 필자의 성찰적 깨달음과도 일치한다.<sup>16</sup>

---

<sup>13</sup> 최인호, 「마음껏 서로 껴안으라, 외로운 인생이여」, 《샘터》 제366회 연작소설 가족.

<sup>14</sup> 한강, 앞의 인터뷰.

<sup>15</sup> 한강, 앞의 인터뷰.

<sup>16</sup> 정승민, 「이별을 통해 배우는 삶의 길」, 《한국수필가협회》.

## 2. 몸의 언어 회복의 가능성

논리적 언어의 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필자도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속상함과 배신감을 느껴 왔다. 『희랍어 시간』은 이처럼 말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인간이 절망하지 않고 몸의 언어를 통해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논리적 증명 대신 취약함을 포용하는 몸의 감각에 기반한 '상실을 포용하는 윤리'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됨을 제언한다. 이 윤리가 타자의 고통을 선불리 '이해합니다'라고 규정하는 대신에 침묵 속에서 타자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껴안는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윤리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익명성에 기반한 혐오와 비난의 문화에 강력한 제동 장치가 될 수 있다. 상대를 규정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진정한 책임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두 주인공이 발견했듯이 우리의 혼은 오직 이 촉각적 연민을 통하는 것으로 파괴되지 않은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 3. 몸의 윤리를 통한 실천적 함의 및 성찰적 결론

본 연구의 과정은 곧 언어의 폭력에 대한 개인적 성찰의 기록이다. 복잡하고 설명 불가능한 실존적 고통을 '깔끔한 결론'으로 재단하려는 사회적 언어의 기제 앞에서 느꼈던 배신감은 곧 이 과제를 통해 비논리적 '닿음의 윤리'를 모색하는 동력이 됐다.

이같은 고통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김난도의 에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은 배경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청춘의 불안과 좌절은 여주인공이 심리치료사의 논리적 진단(깔끔한 결론)을 거부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쉽게 해결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실존적 고통인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아프니까'라는 현실 인정 뒤에 따르는 '위로'에서 심리적 공감을 찾았다. 『희랍어 시간』은 논리적 언어가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이 절망 대신 몸의 언어를 통해 진실한 소통과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있다.<sup>17</sup>

또한, 이 연구 과정에서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곧 인간적인 연대의 출발점임을 깨달았다. 논리적 규정의 족쇄가 풀린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타인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이 깨달음은 이전까지의 고통을 선불리 묻어두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고통 자체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논리와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우리 삶의 비극과 상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몸의 윤리야말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

<sup>17</sup>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쌤터, 2010.

길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성적 증명이나 규정에 기대지 않고 취약함을 포용하는 몸의 감각에 기반한 '상실 포용의 윤리'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천적 함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1.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샘터.
2. 한강. (2011).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 학술 논문 및 자료집

3. 김주환. (2018). 「미셸 푸코의 담론분석 방법론의 원리와 체계적 난점들」.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 문길상. (1999, 2월). 「우리시대의 언어상황」. 《문예운동》, 215-218.
5. 오병욱. 전석원. (2006). 「그림이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대한토목학회지》, 54권 8호, 91-97.
6. 정승민. (2019, 7). 이별을 통해 배우는 삶의 길. 월간 샘터,, 50-51.

### 정기 간행물 및 웹 기사

7. 최인호. (2006, 3월). 「마음껏 서로 껴안으라, 외로운 인생이여」. 《샘터》 (제366회 연작소설 가족)."
8. 한강. (2011년 7월 20일). "우리는 모두 다 세계를 잃어가는 사람들". 《채널에스》. (접속일: 2025. 12. 1).